

한국 여성에게서 보살성 발견

정종미 작가 불교예술성 극찬 박지로 만든 오색 보살도 전시

“모든 여성이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지닌 성정에는 포용력, 배려, 강인함이 있잖아요. 저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많은 여성에게서 그런 불성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의 전통재료와 색채에 심취해온 ‘종이부인’의 정종미 작가(55·고려대 교수). 그가 이번에는 천연 안료에 물든 종이와 천으로 불화 속 보살의 모습을 탄생시켰다.

“20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에서 고려 시대의 명품(名品)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렸어요. 그때 일본 가가미진자(鏡神寺) 소장 ‘수월관음도’를 처음 보고 큰 감동을 받았죠. 우리 채색의 극치를 보여주는 고려불화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서, 언젠가는 고려불화와 연관된 작업을 하리라 결심했어요.”

정종미 작가는 서울 팔관동 갤러리 인에서 3월 10일까지 ‘여성성에 바치는 헌사-보자기 부인’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한국 여인의 아름다움과 신성(神性)에 헌사하는 신작 20여 점이 전시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한지 중에서 가장 얇은 박지(薄紙)에 백(白)·청(靑)·적(赤)·황(黃)·흑(黑)으로 장식한 강물처럼 펼쳐진 거대한 오방색(五色) 물결이 눈에 띈다. “조각보를 위한 진혼곡”은 가로 5m, 세로 5m의 보자기가 벽에서부터 시작돼 20m의 오색박지가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대형 설치작품이다. 정종미 작가가 질곡의 세월을 견뎌온 한국 여성들에게 바치는 헌사이자 진혼곡이다.



종이부인 정종미 작가



수월관음도, 지장보살, 아미타여래의 모습을 띤 오색 보살(96×196cm 한지, 안료, 염료)

오방색 물결 옆 한쪽 벽면에는 수월관음, 아미타여래, 지장보살 등 고려 불화 도상에 한국 여성의 얼굴을 결합시킨 ‘오색보살’ 시리즈가 걸려있다.

정 작가는 오방색 배경에 부처의 형상을 그려 넣었다. 얼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을 띠고 있다. 수월관음과 아미타여래의 화려한 의복을 표현하기 위해 박지를 사용했다.

정 작가는 열 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오랜 시간 한지를 주무르고 비비고 반죽해 색을 물들인 박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순금가루를 섞은 풀로 금박을 그려 넣고 주름을 잡아 오색보살에 옷을 입혔다.

정 작가는 한국 채색화의 역사적 흐름과 의미, 특색을 탐색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재구성하는데 열정을 쏟아왔다. 특히 고구려 벽화나 고려불화, 조선시대 영정화 민화 등 채색화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했다.

“전통 보자기에 담긴 색채관에서 한국의 색과 한국의 여성성을 발견했어요. 고려불화가 그 채색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한국미술사에서 불교 철학과 예술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의 자연색을 비롯한 전통재료를 연구하고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는 정 작가는 불교사상과 불교의 예술성을 극찬했다.

정종미 작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한지 작업을 시작하면서 한국 여성의 ‘한(恨)’을 주제로 작업을 해왔다.

그는 “제가 추구하는 여성성은 모성에 가까운 여성성입니다. 오행사상에 담긴 색채관이 고구려 벽화나 고려 불화에 그대로 드러난다”며 “그런 색채관은 보자기 작업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보자기에 담긴 색채관과 여성성을 작업에 결합시켰다”고 설명했다. (02)732-4677-8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영담 스님, 뉴욕 첼시 갤러리 대표작가 선정

2년간 CATM 갤러리와 전속계약

다심유예술가로 활동하는 영담한지미술관장 영담 스님이 2월 1일 미국 뉴욕의 CATM 첼시 갤러리의 대표작가로 선정됐다. 2011년 9월 CATM 갤러리에 초대돼 ‘ART LIVE 2011’에 첫 데뷔한 후 거듭 성과를 올렸다.

CATM 갤러리는 영담 스님 작품에 대해 “정적이고 역동적이며 한국적이면서도 매우 모던한 작품으로 선(禪)적인 품위가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2년간 영담 스님의 모든 미래의 계획과 예술경력에 관련된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은 물론 기획, 전시, 홍보, 판매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은 세계미술시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뉴욕 화랑가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4월, 영담 스님은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인 타우슨(TOWSON) 대학으로부터 초청 받아 미국학생들에게 4회에 걸쳐 ‘한지의 역사와 예술성’을 강의하고 작품전을 가졌다. 이외에 워싱턴의 피라미드 아트센터에서 열린 미국 유명 중



구경광대다라니경) 등 국보급 영인지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2007년 경북 청도에 영담한지미술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영담 스님은 청도에 영담한지미술관을 운영하며 어린이한지미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지문화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스님은 옛 스님들이 닥나무에 향수를 주어 기르면서까지 종이를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 사경(寫經)하고 불화(佛畵)를 그리며 종이문화를 발전시켰던 정신을 이어 수행과 작품 활동을 겸하고 있다.

CATM, “모던하며 선적인 분위기” 2년간 재정지원 받으며 작품활동

이작가의 작품 활동 행사에 초대받아 한국 전통 한지를 소개하고 작품 제작을 선보였다.

이곳에서 스님의 작품이 첼시의 갤러리 디렉터 눈에 띄어 초대돼 영담 스님은 2011년 9월 ‘ART LIVE 2011’에 데뷔했다.

영담 스님은 “지난 해 데뷔 후 한 미술품 수집가가 저의 작품 좋아해 2점을 구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CATM 갤러리에서 전속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며 “대표작가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저 무덤덤했다. 앞으로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1985년 전통한지연구소를 설립한 스님은 그동안 내면에 감춰져있던 예술성을 한지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영담 스님은 종이의 크기, 작품의 주제, 표현기법에 구애 받지 않고 무심의 경지에서 때때로 알맞게 나뭇잎, 돌맹이 등 다양한 천연 염료를 사용해 작품을 표현해왔다.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스님은 1988년부터 ‘서울종이잔치전’ ‘포스코국제아트페스티벌’ 등 10여 회의 크고 작은 전시회에 출품했다. 또 1987년에는 동국대학교 80주년을 맞아 〈신수화엄경〉〈무

구경광대다라니경) 등 국보급 영인지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2007년 경북 청도에 영담한지미술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영담 스님은 청도에 영담한지미술관을 운영하며 어린이한지미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지문화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스님은 옛 스님들이 닥나무에 향수를 주어 기르면서까지 종이를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 사경(寫經)하고 불화(佛畵)를 그리며 종이문화를 발전시켰던 정신을 이어 수행과 작품 활동을 겸하고 있다.



CATM 갤러리에 전시돼 판매된 ‘만고불변’(2008, 파고지에 자연물감)

인도 등서 300만장 팔린 전통 명상 음악

콘텐츠코리아, ‘시바 찬트’ 발매

인도의 시바(Shiva)신에게 예배드리는 전통인도음악으로 구성된 명상음반이 발매됐다.

콘텐츠코리아는 인도의 전통 슬로카(sloka) 모음집 ‘시바의 신성한 찬트(Sacred Chants of Shiva)’를 국내에 발매했다.

슬로카란 산스크리트어로 돼있는 베다의 구절을 말한다. 보통 8행씩 4행씩 두 개의 절로 구분돼 있거나, 16개 음절의 2행으로 구성돼 32개의 음절로 된 시가의 형태를 띤다. 각 행은 파다(pada)라고 해 인

도인들은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원이나 집안의 성소에서 외우거나 각종 행사 전에 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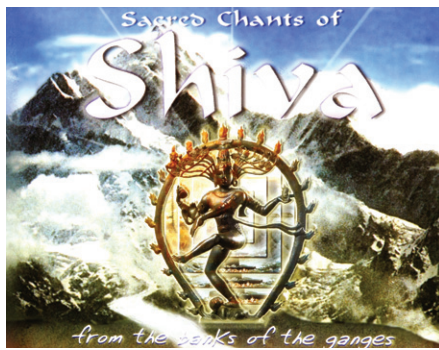
7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이번 앨범은 국내에 라이선스로 소개되는 최초 전통인도 음악으로 인도전역 대부분 아쉬람과 사원에 비치 돼 있을 정도로 찬사를 받고 있는 걸작이다. 인도와 네팔에서만 300만장이상 팔린 세계적인 명상음악 작품이다.

앨범은 현존하는 영적 지도자중 한 명인 श्री श्री 라비 상카(Shri Sri Ravi Shankar)가 설립한 ‘아트 오브 리빙(the Art of Living)’ 소속 명상음악가들의 만트라 찬

팅으로 구성돼 있다. 2012년도 한국판에는 5분 가량의 ‘Om Nama Shivaya’ 스페셜 버전이 추가로 수록돼 있다.

앨범은 시바 신에게 예배드리는 전통 슬로카모음집으로 드론(drone, 지속음)의 흐름을 바탕으로 음악이 전개된다. 인도인들은 슬로카를 통해 명상에 들고, 내면을 닦는다. 명상음악에서의 화두는 결국 얼마나 인간의 깊은 내면을 두드리느냐에 있다. 치유음악으로써 인도전통음악이 효과가 있는 것은 지속음인 드론의 역할이 크다.

콘텐츠코리아는 “이 명상음반은 듣는 이들을 몰입시키고 지속되는 하나의 파장이



‘시바의 신성한 찬트’

심신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며 “산스크리트 만트라라는 내면의 빛과 색채와 같은 소리의 떨림으로 뇌의 숨어있는 세포를 일깨우는 강력한 파워를 발휘한다. 깊은 명상과 이완 및 요가수련에 효과적인 음악”이라고 설명했다.

이나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찬

한 권으로 보는 세계불교사

불교의 발생지 **인도** | 독자적인 대승불교를 발전시킨 **중국, 일본, 베트남**
 초기불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후기 인도불교를 전승·발전시킨 금강승의 나라 **티베트**
 중앙아시아의 대표적 불교국가 **몽골** | 전통을 계승·발전하며 새롭게 약진하는 **타이완**
 다양한 문화와 민족의 융광로이자 종교와 과학의 융합점 **미국**

세계 각 지역의 불교 전파 과정과 현황에 대한 자세한 조망을 통해 세계 종교로서의 미래불교를 창조할 수 있다.

변화와 혁신의 21세기

미래 불교가 나아갈 길은? 도전과 응전의 2,600년 역사속에 있다!

◎ 승가대학 교재
변형 4 6배판 | 508쪽 | 23,000원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불광출판사